

# 韓國語에 나타난 日本語系 慣用語에 관한 고찰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홍민희\* · 권익호\*\*

(e-mail : mhfine2@naver.com · kih@cau.ac.kr)

##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대별로 수록된 일본어계 관용어          |
| 2. 연구배경             | 5. 사전에 있어서 공식적 고찰             |
| 3. 연구방법 및 자료        | 5.1. 조사범위와 자료                 |
| 3.1. 연구방법           | 5.2. 한·일 양국어에 있어서 관용어의 어휘적 특징 |
| 3.2. 조사자료           | 5.3. 매스컴에 있어서 일본어계 관용어        |
| 3.3. 한국어사전에 수록된 관용어 | 6. 결론                         |

キーワード：慣用語(idiom), 語彙(vocabulary), 共時的·通時的(synchronic and diachronic), 外来語(loanword), 國語循環運動(Korean Language Circulation Movement)

## 1. 서론

한국어의 언어생활 가운데서 일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실제로 현대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에서부터 외래어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본어의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시사용어까지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찾기”라는 한국어 순화운동이 일부 학계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처럼 일본어는 한국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한국어인지 일본어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뿌리 깊게 잠식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 침투에 대한 한국어 되찾기의 과정과 분야를 살펴보면, 1945년 일본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어학(제1저자)

\*\*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어학(교신저자)

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된 이래 일본어가 한국어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국어에 스며든 일본어 어휘에 대한 것이었고, 일본어투의 문장 표현, 즉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 등에 관한 것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광(1995)은 그의 논문에서 “한일 두 언어의 접촉에서 차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것이 어휘의 층위이고 문법 부분은 매우 보수적이라는 이론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1)</sup> 본격적인 일본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근대 한국어에 비하여 일본어와 매우 흡사한 문장구조와 관용적 표현이 생겼다는 사실을 많은 한국어 학자들이 간과했던 것이다. 권익호 외(2019)도 시대별, 신문사별 일본어투 조사 연구에서 현대 한국어의 문어에도 여전히 일본어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작가와 논설가, 교육자들이 일본어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식민지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일본어로 문필활동을 하다가 다시 한국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예가 많았다는 사실은 정광(1995)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던 작가가 후일에 한국어로 쓴 작품 속에서 일본어투의 관용표현(본고에서는 편의상 ‘일본어계 관용어’라고 칭한다)이 침투되는 양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그 영향이 현대 국어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착안하여 시대별로 출판된 한국어사전을 토대로 그 안에 수록된 일본어계 관용어의 유입실태를 통시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시대적 대조가 가능한 언론매체인 국내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공시적 고찰을 시도하여 일본어의 차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무분별한 일본어의 차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한국어의 보호,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배경

한국어에는 일본어가 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和製英語(일제영어), 관용어, 和製洋語(일제외래어), 일본고유어 등 일본어의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

1) 정광(1995) 「일본어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제5권 2호, p.88.

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관용어에 관한 통시적 대조·비교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그다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관용어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가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고, 그 대부분이 양국어의 공시적 대조·비교연구이다. 이런 연구를 종합해보면 한·일 양국어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일본 독특한 관용어(일본어계 관용어라고 부른다)가 직접 한국어에 침투하여 한국어에 뿌리를 내린 것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어휘 및 관용어 중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일본에서 유입되어 정착되었으며, 근래의 문화개방과 더불어 수입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에 침투한 일본어계 관용어의 연구는 어원적, 어휘사적 연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맞물려 한국어의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관용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9세기 말 이후 한국어에 어느 정도의 일본어계 관용어가 언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편찬된 국어사전에 수록된 관용어를 중심으로 통시적·공시적 고찰을 통해 한국어 속의 일본어의 잔재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소설, 잡지 등 방대한 시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로 편찬된 사전과 신문에 국한하여 부분적이거나 일본어의 유입실태에 대하여 분석·고찰을 시도하였다.

### 3. 연구방법 및 자료

#### 3.1. 연구방법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 관계나 어휘의 의미, 표현상으로도 유사성이 많다. 이는 양국이 같은 문화권에 속하면서 역사적 배경, 문화적 교류 등과 깊은 연관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일본어에서 차용됐다고 생각되는 관용어를 1910년에서 2000년대 현재까지 출판된 한국어사전에 어떤 유입 경로를 통하여 들어왔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 부위 중에서도 특히 손, 눈, 가슴, 얼굴

(낮), 머리, 귀, 입, 어깨, 코, 목, 다리(발), 피, 엉덩이, 혀, 눈물, 숨, 눈썹, 입술, 무릎, 손가락, 심장, 침, 뼈, 몸 등 총 24항목에 한정하여 조사에 임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1910년부터 2000년대까지의 연대별로 출판된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관용어의 유입현황을 살펴보았다.

### 3.2. 조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전의 자료로서 1910년대부터 현재 2000년대까지 사용된 연구자료<sup>2)</sup>는 지면 관계상 주석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2) 1) 1910년~1930년  
『韓英字典』 第2版 - 1911년 (J.Scarth Gale)  
『朝鮮語辭典』 - 1920년  
『韓英大字典』 - 1931년 (J.Scarth Gale)
- 2) 1950년대  
『큰 국어사전』 - 1957년 (운국사)  
『중사전』 - 1958년 (한글학회)  
『표준 국어사전』 - 1958년 (장문사)  
『동아 새국어 사전』 - 1959년 (동아출판사)
- 3) 1960년대  
『새국어사전』 - 1963년 (國際文化社)  
『실용국어사전』 - 1963년 (理想社)  
『포켓트 국어사전』 - 1968년 (民衆書館)  
『실용 신 국어사전』 - 1965년 (금문사)  
『표준 국어사전』 - 1968년 (성문사)  
『모범 국어사전』 - 1969년 (이상사)
- 4) 1970년대  
『동아새국어사전』 - 1970년 (교재출판사)  
『표준국어사전』 - 1972년 (성문사)  
『신국어사전』 - 1974년 (어문각)  
『새국어대사전』 - 1975년 (한영출판사)  
『현대국어대사전』 - 1975년 (한서출판사)  
『국어대사전』 - 1975년 (홍문사)  
『새국어대사전』 - 1975년 (진현서관)  
『국어대사전』 - 1976년 (민중서관)  
『동아국어대사전』 - 1976년 (동아출판사)  
『한국외래어사전』 - 1976년 (배양서원)  
『최신국어대사전』 - 1978년 (삼덕출판사)  
『국어대사전』 - 1979년 (민중서림)
- 5) 1980년대  
『국어대사전』 - 1980년 (범중당)  
『최신국어대사전』 - 1981년 (민중서림)  
『국어 대사전』 - 1984년 (학력개발사)  
『새한글사전』 - 1986년 (한글학회)

### 3.3. 한국어사전에 수록된 관용어

아래의 <표1>은 시대별로 한국어사전에 수록된 일본어계 관용어의 분포를 도표화한 것이다.

<표1> 국어사전에 연대별로 수록된 관용어

년대 신체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손(手)	1	3	0	2	2	1	12	7	5
눈(目)	0	0	0	6	0	0	4	9	8
가슴(胸)	0	0	0	3	2	5	3	9	1
얼굴·낯(顔·面)	0	1	1	2	2	1	3	6	0
머리(頭)	0	0	0	0	0	3	1	11	1
입(口)	0	0	0	0	0	2	6	6	4
귀(耳)	0	0	0	1	1	2	3	2	1
어깨(肩)	0	0	0	0	1	1	1	4	3
코(鼻)	0	0	0	0	1	1	1	3	2
목(首)	0	0	0	0	1	0	2	2	2
다리·발(足)	0	0	0	1	0	1	1	1	3
피(血)	0	0	0	0	0	1	1	2	5
엉덩이(尻)	0	0	0	0	0	1	1	1	2
혀(舌)	0	0	0	0	0	0	0	1	2
눈물(淚)	0	0	0	0	0	0	2	0	1
숨(息)	0	0	0	0	0	0	1	1	3
눈썹(眉)	0	0	0	0	0	0	1	0	2
입술(唇)	0	0	0	0	0	1	0	0	0
무릎(膝)	0	0	0	0	0	0	0	1	2
손가락(指)	0	0	0	0	0	0	0	1	0

- 『새우리말 큰 사전』 - 1986년 (삼성출판사)
- 『대국어사전』 - 1987년 (현문사)
- 6) 1990년대
  - 『국어대사전』 - 1991년 (금성사)
  - 『국어대사전』 - 1991년 (삼성문화사)
  - 『국어대사전』 - 1994년 (민중서림)
  - 『국어대사전』 - 1994년 (교육서관)
  - 『관용어사전』 - 1996년 (태학사)
  - 『우리말 큰사전』 - 1997년 (어문각)
  - 『표준동아대사전』 - 1999년 (두산동아/국어연구원)
  - 『연세한국어사전』 - 1999년 ( 두산동아/연세대)
- 7) 2000년대
  - 『국어대사전』 - 2019년 (민중서림)
  - 『표준국어대사전』, - 국립국어연구원 (stdweb2.korean.go.kr)
  - 『연세한국어대사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심장(心臟)	0	0	0	1	0	0	0	0	1
침(かたず·唾)	0	0	0	1	0	0	0	0	1
뼈(骨)	0	0	0	0	0	1	0	1	3
몸(身体)	0	0	0	0	0	1	0	2	6

위의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0년에서 1930년대의 한국어사전에서는 의외로 일본어형 관용어 숫자가 적는데 그것은 경술국치 이후 한국동란까지 여러 가지 격변기 속에서 한국어사전의 출판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해방 후 군사정권 이래 음성적으로 일본문화가 수입되면서 1980년도 이후에 급격히 일본어계 관용어가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일제 강점기를 지나 근대화 경제정책과 더불어 대학입시에 일본어의 제2의 국어로서 채택과 맞물려 일본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우리말 되찾기 운동 및 국어순환 운동 등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의 일본문화개방과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사회적 비중도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말에 대한 범국민적인 무관심과 자긍심의 결여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어계 어휘 및 관용어를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3)</sup>

#### 4. 연대별로 수록된 일본어계 관용어

<표2>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손(手), 눈(目), 얼굴·낯(顔·面))

身体 年代	손(手)	눈(目)	얼굴·낯(顔·面)
50年代	손을 대다 (手をつける)	눈이 가다 (目が行く)	낯짝이 두껍다 (面の皮が厚い)
		눈에 선하다 (目に浮かぶ)	
	손 빌다 (手を借りる)	눈 감다 (目をつぶる)	얼굴을 붉히다 (顔を赤める)
		눈 뜨다 (目を開く)	
눈 주다 (目をやる)			
눈 맞추다 (目を合わせる)			

3) 「손을 대다」는 1910년부터 “어떠한 일을 착수하다” 혹은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는 일본어의 「手を付ける(손을 대다)」의 제2의 의미인 「여성과의 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 수록됨.

60年代	손이 닿다 (手がつく. 手が届く)	無	얼굴이 새파랗게 되다 (顔が真っ青になる)
	손에 땀을 쥐다 (手に汗を握る)		얼굴이 넓다. (顔が広い)
70年代	손 끊다 (手切る)	無	안색을 살피다 (顔色を窺う)
80年代	손에 넣다 (手に入れる)	눈 팔다 (目を奪われる)	얼굴이 빨개지다 (顔が赤くなる)
	손에 걸리다 (手にかかる)		
	손에 떨어지다 (手に落ちる)	눈이 동그래지다 (目を丸くする)	얼굴을 내밀다 (顔を出す)
	손을 대다 (手をつける) ◎여자와 관계를 가지다		
	손이 닿다 (手が届く)	눈이 나오다 (目が出る)	얼굴에 흙을 바르다 (顔に泥を塗る)
	손이 부족하다 (手が足りない)		
	손을 들다 (手をあげる)		
	손때가 묻다 (手垢がつく)	눈이 돌다 (目が回る)	얼굴에 흙을 바르다 (顔に泥を塗る)
	손발이 되다 (手足となる)		
	손 비다 (手があく)		
	손을 빼다 (手を引く)		
	손에 손을 잡다 (手に手を取る)		
90年代	손에 건네다 (手に渡る)	눈에 모를 세우다 (目に角を立てる)	얼굴을 고치다 (顔を直す)
	손을 데다 (手を焼く)	눈이 캄캄하다 (目の前が暗くなる)	
	손을 뒤집다 (手を返す)	눈을 의심하다 (目を疑う)	얼굴이 팔리다 (顔が売れる)
	손을 펼치다/손을 뻗다 (手を広げる/伸ばす)	눈을 끌다 (目をひく)	얼굴을 더럽히다 (顔を汚す)
	손이 돌다 (手が回る)	눈이 높다 (目が高い)	얼굴을 하다 (顔をする)
		눈과 코 사이 (目と鼻の間)	
	손이 빠르다 (手が早い)	눈을 떴다 (目を外す)	얼굴이 서다 (顔が立つ)
		눈 깜짝할 사이 (目を瞬く間)	
손에 잡히지 않다 (手につかな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目に入れても痛くない)	얼굴을 돌리다 (顔を背ける)	

00年代	손에 들어가다 (手に入る)	눈에 거슬리다 (眼に障る)	無
	손에 붙다 (手に付く)	눈에 들다 (目に入る)	
		눈에 불을 쬐다/ 눈을 번쩍이다 (目を光らす)	
		눈에 불이 난다 (目から火が出る)	
	손에 잡힐 듯이 (手に取るよう)	눈에 어리다 (目に浮かぶ)	
	손에 쥐다 (手に握る)	눈에 쌍심지를 쬐다 (目に角を立てる)	
	눈에 칼을 세우다 (目を三角にする)		
	눈을 뜨다 (目が覚める)		

<표3>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발·다리(足), 귀(耳), 가슴(胸))

身体 年代	발·다리(足)	귀(耳)	가슴(胸)
50年代	발을 빼다 (足を抜く)	귀 기울이다 (耳を傾ける)	가슴이 넓다 (胸が広い)
			가슴을 열다 (胸を開く)
			가슴이 좁다 (胸が狭い)
60年代	無	귀가 아프다 (耳が痛い)	가슴이 타다 (胸が焼ける)
			가슴에 간직하다 (胸に納める)
70年代	발을 뻗다 (足を延ばす)	귀에 못이 생기다 (耳にたこができる)	가슴을 펴다 (胸を張る)
			가슴에 닿다 (胸に当たる)
		귀를 막다 (耳をふさぐ)	가슴을 찌르다 (胸をつく)
			가슴을 부풀다 (胸を膨らます)
			가슴이 두근거리다 (胸がどきどきする)
80年代	발을 옮기다 (足を運ぶ)	귀를 세우다 (耳を立てる)	가슴이 선뜻하다 (胸がじんとしてくる)
		귀에 거슬리다 (耳に障る)	가슴이 아프다 (胸が痛い)
		귀에 들어오다 (耳に入る)	가슴을 앓다 (胸を病む)

90年代	발을 들어 놓다 (足を踏み入れる)	귀를 씻다 (耳を洗う)	가슴이 설레다 (胸が騒ぐ)
			가슴이 막히다 (胸がつまる)
			가슴이 찢어지다 (胸が張り裂ける)
			가슴에 새기다 (胸に刻む)
		귀를 의심하다 (耳を疑う)	가슴에 못 박다 (胸に釘打つ)
			가슴을 쓸어내리다 (胸を撫で下ろす)
			가슴을 태우다 (胸を焦がす)
			가슴에 손을 얹다 (胸に手をおく)
00年代	발길이 멀어지다 (足が遠のく) 발길이 무겁다 (足が重い) 발을 씻다 (足を洗う)	귀가 멀다 (耳が遠い)	가슴을 치다 (胸を打つ)
			가슴이 뜨거워 지다 (胸が熱くなる)

<표4>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입(口), 머리(頭), 몸(身·体))

身体 年代	입(口)	머리(頭)	몸(身·体)
50年代	無	無	無
60年代	無	無	無
70年代	입 막다 (口を塞ぐ)	머리가 무겁다 (頭が重い)	몸을 던지다 (身を投げる)
	입에 오르내리다 (口にのぼる)	머리가 굳다 (頭が固い) 머리를 굽히다 (頭が下がる)	
80年代	입이 무겁다 (口が重い)	머리가 아프다 (頭が痛い)	無
	입을 모으다 (口をそろえる)		
	입이 가볍다 (口が軽い)		
	입을 닫다 (口を閉じる)		
	입을 열다 (口を開く)		

	입을 봉하다 (口を封じる)		
90年代	입에 맞다 (口に合う)	머리를 깎다 (頭をそる)	몸이 떨리다 (身が震える) 몸을 망치다 (体を壊す)
	입이 삐죽하다 (口を尖らせる)	머리를 옆으로 흔들다 (頭を横に振る)	
		머리를 들다 (頭を上げる)	
	입에 풀칠하다 (口を糊する)	머리를 숙이다 (頭を下げる)	
		머리를 짜다(頭を絞る)	
	입에 신물이 난다 (口がすっぱくなる)	머리를 쓰다 (頭を使う)	
		머리에 떠오르다 (頭に浮かぶ)	
	입을 맞추다 (口を合わせる)	머리를 긁다 (頭を搔く)	
머리를 쳐들다 (頭をもたげる)			
입이 궁금하다 (口寂しい)	머리를 식히다 (頭を冷やす)		
	머리에 넣다 (頭に入れる)		
00年代	입이 걸다 (口が荒い)	머리를 싸쥐다 (頭を抱える)	몸(을) 빠다 (体が空く)
	입 밖에 내다 (口に出す)		몸(을) 팔다 (体・身を売る)
	입에 올리다 (口に上せる)		몸이 가볍다 (身が軽い)
	입에 게거품을 [거품을] 물다 (口角泡を飛ばす)		몸 둘 바를 모르다 (身の置き所がない)
몸을 빼내다(身をひく)			
			몸을 맡기다 (身を任せる)

<표5>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엉덩이(尻), 피(血), 뼈(骨))

身体年代	엉덩이(尻)	피(血)	뼈(骨)
50年代	無	無	無
60年代	無	無	無
70年代	엉덩이가 무겁다 (尻が重い)	피를 나누다 (血を分ける)	뼈를 깎다 (骨身を削る)
80年代	엉덩이에 불이 붙다	피가 끓다	無

	(尻に火がつく)	(血が沸く)	
90年代	엉덩이를 붙이다 (尻を据える)	피도 눈물도 없다 (血も涙もない)	뼈를 묻다 (骨を埋める)
		심혈을 쏟다 (心血を注ぐ)	
00年代	엉덩이가 가볍다 (尻が軽い)	피가 통하다 (血が通う)	뼈(가) 있다 (骨がある)
		피가 되고 살이 되다 (血となり肉となり)	뼈에 새기다 (骨に刻む)
		피에 굶주리다 (血に飢える)	뼈에 사무치다 (骨に沁みる)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 (尻がこそばゆい)	피를 받다 (血を受ける)	
피를 보다 (血を見る)			

<표6>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침(かたず·唾), 심장(心臓))

身体 年代	침(かたず·唾)	심장(心臓)
50年代	침을 삼키다 (かたずを飲む)	심장이 강하다 (心臓が強い)
60年代	無	無
70年代	無	無
80年代	無	無
90年代	無	無
00年代	침을 바르다 (唾を付ける)	심장이 약하다 (心臓が弱い)

<표7>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눈물(涙), 입술(唇), 눈썹(眉))

身体 年代	눈물(涙)	입술(唇)	눈썹(眉)
50年代	無	無	無
60年代	無	無	無
70年代	無	唇をかむ (입술을 깨물다)	無
80年代	눈물을 닦다 (涙をぬぐう)	無	눈썹을 찌푸리다 (眉をひそめる)
	눈물 젖다 (涙にぬれる)		
90年代	無	無	無
00年代	눈물(을) 삼키다 (涙を呑む)	無	눈썹도 까딱하지 않다 (眉一つ動かさない)
			눈썹에 불이 붙는다 (眉に火がつく)

## &lt;표8&gt; 연대별 일본어계 관용어(무릎(膝), 혀(舌), 손가락(指), 숨(息))

身体 年代	무릎(膝)	혀(舌)	손가락(指)	숨(息)
50年代	無	無	無	無
60年代	無	無	無	無
70年代	無	無	無	無
80年代	無	無	無	숨이 막히다 (息が詰まる)
90年代	무릎을 치다 (膝を打つ)	혀를 내밀다 (舌を出す)	손꼽아 기다리다 (指折り数えて待つ)	숨을 죽이다 (息を殺す)
00年代	무릎(을) 꿇다 (膝を屈める)	혀가 돌다 (舌が回る)	無	숨(이) 끊어지다 (息が切れる)
	무릎을 마주하다 (膝を突き合わせる)	혀를 내두르다 (下を振るう)		숨(을) 넘기다 (息を呑む)
				숨(을) 거두다 (息を引き取る)

지금까지 한국어사전에 실린 관용어를 단편적이지만은 손에서부터 몸까지 약 24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 근대 한국어의 저명한 연구자인 송민은 한국어의 관용적 표현에 차용되거나 영향을 준 일본어계 관용어인 「愛敬が溢れる」(애교가 넘친다) 등을 비롯하여 190여 개의 일본어계 관용어를 찾아서 우리말 속에 내재된 일본어 잔재 등을 그의 연구 논문에서 밝혔다.<sup>5)</sup> 그는 논문에서 우리말의 관용어들은 일본어와 문법적 구조나 의미가 합치된다는 점에서 일본어계 관용어가 한국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광은 예를 들면 일본어 「飽きるほど-배가 터질 만큼(터지도록)」의 경우, 일본어 「飽きる(싫증나다, 물리다)」를 터질 만큼(터지도록)으로 치환한 것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정광은 같은 예로 「頭をよこに振る(머리를 옆으로 흔들다)」를 비롯하여 「いい人(좋은 사람)」 「怒りを解く(노여움을 풀다)」 「一言もない(말 한마디도 없다)」 등의 표현은 근대 한국어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연한 일치이거나 한문표현의 영향으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4) 이러한 연구조사는 시대별로 출판된 국어사전을 총망라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여건상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완벽한 조사라고는 말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5) 송민(1988)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국어생활』 14호, p.55.

결국 송민(1988)도 그의 논문에서 언급한 우리말의 관용어가 모두 일본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지 않았고, 한문이나 서양어의 기원을 둔 것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실례로 「會を持つ(회의를 갖다)」 「心の目でみる(마음의 눈으로보다)」 등은 영어의 「have a meeting」 「see in once mind」의 직역으로 보아 서양어의 기원을 둔 관용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관용어에서 일본어의 영향도 적지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는 영어와 한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지 어떤 관용어가 일본어와 유사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를 일본어 관용어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방면에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sup>7)</sup>

## 5. 사전에 있어서 공시적 고찰

### 5.1. 조사범위와 자료

본 연구에 앞서 한·일 관용어의 어휘적인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일본의 참고자료를 宮地裕의 『관용구의 의미와 용법』(1982)을 이용하고 한국의 자료는 『관용어사전』(박영준·최경봉(1996))을 이용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관용구의 의미와 용법』 속에 수록된 「상용관용구일람」을 근거로 했지만, 이것은 저자인 宮地裕가 다섯 종류의 사전에서 宮地裕의 판단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 「상용관용구일람」에는 관용어가 1280여 개가 수록되어 있고 한국어의 『관용어사전』에는 3,506개가 수록되어 있다.

6) 전개서(1), 정광(1995) p.103.

7) 이와 관련하여 한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관용어는 다음과 같다.

땀을 흘리다(汗を流す(流汗)) 머리를 긁다(頭を搔く(搔首)) 어깨를 나란히 하다(肩を並べる(並肩)) 입에 오르다(口に上がる(上口)) 힘을 다하다(力を尽す(尽力)) 얼굴이 새파래지다.(顔が真っ青になる(變蒼白)) 얼굴을 내밀다(顔を出す(出面)) 얼굴이 넓다(顔が広い(面広)) 손을 빌리다(手を借りる(借手))

괄호 안의 한자어는 중국어인데 위의 관용어는 한자배열로 보아 중국어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한자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추측되는 관용어이다.

## 5.2. 한·일 양국어에 있어서 관용어의 어휘적 특징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한·일 관용어의 자료로서 아래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본 조사에 임하였다. <표9>과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용어를 6부류로 나누어 양국의 자료에 실려 있는 관용어를 세분화하여 어휘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표9> 일본자료 「常用慣用句一覽」의 어휘적 특징

구별	신체	동물	식물	정신	사물	그 외	합계
日本語 例数(%)	410(32.0)	19(1.5)	20(1.6)	87(6.8)	289(22.6)	455(35.5)	1280(100)

<표10> 한국자료 『慣用語辞典』(박영준·최경봉(1996))의 어휘적 특징

구별	신체	동물	식물	정신	사물	그 외	합계
韓國語 例数(%)	1420(40.5)	103(2.9)	60(1.7)	95(2.7)	530(17.0)	1298(37.0)	3506(100)

위의 <표9>과 <표10>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체에 관한 관용어가 양국의 자료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을 필두로 나머지 관용어의 분포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sup>8)</sup>

아울러 연구자료 「상용관용구일람」 속에 한국어와 의미나 표현이 일치하는 관용어를 선정하여 어휘별로 고찰해 봤는데 이 어휘별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에서 나오는 분비물 예를 들면, 땀, 침, 눈물 등은 신체관용어 부류로 포함시켰다. 그 결과 <표9>, <표10>와 같이 신체에 관한 관용구가 반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표11>은 일본어의 관용어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국어의 관용어와 일치되는 것을 정리한 통계이다. 그리고 <표12>는 한·일 양국어에서 의미와 표현이 일치하는 관용구를 신체부위별로 그 분포도 순위를 매

8) 이번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상 실지 못했지만 <표4>의 결과를 내기 전에 양국어에 있어서 각각의 신체에 관련한 관용어 빈도별로 조사한 결과 1위에서 14위까지의 순위는 양국어가 대체로 신체어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순위 1위를 보면 한국어에는 「손」이 일본어에는 「눈」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양국문화와 관련시켜보면 예를 들면 요리를 만들 때 한국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에 의해 그 맛을 좌우한다던지 처음 만난 사람 또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는 악수한다는 손의 접촉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인의 경우에는 요리에서도 시각적이고 처음 만난 사람과는 악수를 그다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은 「손」에 의한 접촉, 확인이 중시된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일본인은 「눈」에 의한 인상이 중시된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이 관용어 속에서도 영향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긴 결과다.

<표11> 일본자료 「常用慣用語一覽」 속에서 兩國語의 意味나 表現이 유사한 慣用語

어휘 항목 분포	신체	동물	식물	정신	사물	그 외	합계
	162(51.3)	12(3.8)	6(1.9)	42(13.3)	40(12.6)	54(17.1)	316(100)

- 例) 신체: (韓)머리를 짜다 (日)頭を絞る  
 동물: (韓)벌집을 쭈신 듯 (日)蜂の巣をつついたよう  
 식물: (韓)도토리 키 채기 (日)どんぐりの背くらべ  
 정신: (韓)기가 막히다 (日)気が詰まる  
 사물: (韓)잔을 기울이다 (日)杯を傾ける

<표12> 신체어휘 관용어에서 兩國語의 意味나 表現이 一致하는 慣用語의 順位

順位 分布	1	2	3	4	5	6	7	8	9		10	11
	手 (24 / 14.8)	目 (23 / 14.2)	胸 (22 / 13.6)	顔面 (14 / 8.7)	頭 (12 / 7.4)	口 (11 / 6.8)	耳 (9 / 5.6)	肩 (7 / 4.3)	鼻 (6 / 3.7)	首 (6 / 3.7)	足 (5 / 3.1)	血 (4 / 2.5)
順位 分布	12		13			14						合計
	身体 (3 / 1.9)	尻 (3 / 1.9)	骨 (2 / 1.2)	涙 (2 / 1.2)	息 (2 / 1.2)	眉 (1 / 0.6)	唇 (1 / 0.6)	膝 (1 / 0.6)	指 (1 / 0.6)	心臟 (1 / 0.6)	かたず (1 / 0.6)	舌 (1 / 0.6)

위의 분류는 한·일 양국어의 사전을 근거로 한 결과이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다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가. 意味가 거의 같은 관용어

例)얼굴이 팔리다(顔が売れる)一共: 이름이 널리 세상에 알려지다. 유명해 지다.

나. 日本語에서의 意味領域이 넓고 韓國語의 意味는 日本語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관용어

例)손이 닿다(手が届く)一共: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음.  
 日: 어떤 年齢이나 시기가 되다.

다. 韓國語에서의 意味領域이 넓고 日本語의 意味는 韓國語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관용어

例)손이 비다(手があく)-共: 일이 적어서 한가해지다.

韓: 돈이 없다.

라. 共通의 意味領域도 있으면서 각각 서로 다른 의미도 있는 관용어

例)손이 빠르다(手が早い)-共: 일 처리가 빠르다.

日: ①暴力을 휘두르다.

②女性과 관계를 맺다.

韓: 물건이 잘 팔리다.

(共: 韓日兩國語의 共通意味, 韓: 韓國語의 意味, 日: 日本語의 意味)

이상과 같이 이러한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말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양국어의 사전이나 발표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분류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전의 경우 어느 사전에서는 현재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의미도 실려 있는 한편, 어떤 사전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미도 빠져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 따라서 의미가 다소 상이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의 분류는 이제부터 신뢰성 높은 많은 사전과의 대조나 실제의 용례와의 대조 등을 통해 조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5.3. 매스컴에 있어서 일본어계 관용어

본 연구에서는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국어 속에 일본어 특히 일본어 관용어의 무분별한 차용실태를 한국의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고 일본어계 관용어의 정착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력 일간지를 통해 일본어계 관용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추출하여 어원적 배경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 5.3.1. 신문에 있어서 慣用語 차용실태

여기에서는 한국의 유력일간지 몇 종류를 선정하여 일본어계 관용어의 차용 실태를 살펴보면서 일본어 관용어에 대한 남용의 사례와 이와 관련한 우리말의 대응어 등을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sup>9)</sup>

9)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력 3대 일간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계

○을회는 어깨로 한숨을 몰아쉬었다 (중양:肩で息をする)

肩で息をする를 직역한 형태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한숨을 크게 쉬다”와 같은 번역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본다.

○거울을 보아야 얼굴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중양:顔を直す)

일본어에서 「顔を直す」는 화장을 하다는 의미인데 흔히 한국어에서는 “얼굴을 고치다”라고 하면 “성형수술을 하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화장하다’로 사용되고 있었던 “얼굴을 매만지다” 대신 “얼굴을 고치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파는 인기 전략을 (중양:顔を売る)

일본어로 「顔が売る(얼굴을 팔다)」는 예능인과 탈렌트 또는 어떤 사람이 뭔가 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되어 그 이름과 얼굴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도 놀랄만한 고급자료를 요청했으면 얼굴이 서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중양:顔が立つ)

본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어에서는 「顔(얼굴)」이 체면이나 면목에 관계되는 관용어가 많이 보이는데, 한국어에서는 사용형태의 관용어가 일본어만큼 풍부하질 못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도 체면에 관계되는 관용어가 50년대 이후 급속하게 사전에 수록되기 시작하는데, 위의 “얼굴이 서다”는 한국어사전에 등재된 시기가 90년대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일본어에서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계가 마치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화급한 반응을 (중양:尻に火がつく)

어떤 일이 다급해지거나 위급할 때 일본어에서 「尻に火がつく(엉덩이에 불이 붙다)」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와 똑 같은 의미의 관용어로 「발등에

---

관용어의 사례를 연구 자료로 선정해서 조사하였다.

불이 떨어지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신문에서는 일본어계 관용어 “엉덩이에 불이 붙다”를 차용하고 있다.

○사실 미군의 아이티 침공은 이 나라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감안할 때 「어린애 손목 비틀기이다.(중양:赤子の手をねじる)

일본어에서 아주 손쉬운 일을 비유할 때 「赤子の手をねじるよ(어린 아기 팔 비틀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최근의 한국 신문에서도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어 실로 일본어 남용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다. 순수한 한국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대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다소 잔인할 정도의 느낌이 드는 일본어 표현을 왜 차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死刑制 이젠 「마침표」를 찍읍시다 (동아:終止符を打つ)

본래 이 표현은 일본어 「終止符を打つ(종지부를 찍다)」에서 연유된 말로 종지부 대신 한국어 “마침표”라는 단어로 대치한 형태다.

○공화당 후보의 대결보다 더욱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평가다.(동아:手に汗を握る)

흔히 한국에서도 “손에 땀을 쥐다”라고 하면 어떤 긴박감이나 긴장된 상황을 묘사할 때 쓴 표현인데 일본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일본에서 16세기에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관용어가 60년대 사전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인천공항 2단계공사에 적신호가 켜졌다.(조선:赤信号)

수험생 고득점에 빨간불이 켜지다(동아:赤信号)

일본어에서 「赤信号」는 교통신호등의 멈춤을 나타내는 빨간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빨간불이 켜지다”는 이 표현의 변이형태다.

10) 일본국어대사전(2001)에 의하면 「手に汗を握る」가 天正本節用集(1590)에 「手握汗 テニアセヲニギル」라는 형태로 수록되어있다.

○민주노동당 김용한 예비후보가 TV토론에서 첫 진검승부를 벌였다.(조선:真劍勝負)

이 말은 검도에서 목도나 죽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정도의 승부가 아니라 진검을 가지고 승부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을 말한다. 이 표현 이외에도 「真劍にや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진검으로 하듯이 진지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요즘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은 본뜻을 알고 일본어 표현임을 자각하는 바람이다.

이 밖에도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가만 오르면 작전하는 게 대수인가'하는 '간 큰 얘기'도 내놓고 하는 (동아:肝っ玉が大きい)
- “잘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동아:水を差す)
- 바로 나왔다고 폭로하자 기름을 끼얹은 듯 불길이 번졌다.(동아:油を掛ける (注ぐ))
- 지구촌으로 눈을 돌리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동아:目を向ける)
- 악바리 투혼의 대명사 박정태(31.롯데)가 이를 더 악물었다.(동아:歯を食いしばる)
- 재계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동아:台風の目)
-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동아:ひびがはいる)
- 모든 계획이 백지로 돌아갈 수도 (동아:白紙に返す)
- 퇴출기업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동아:秒読み)
-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겠다.”(동아:腕を拱く)
- 혁명의 방아쇠를 당겨준 광원들에게 사의를 표하기 위한 행차였다.(동아:引金を引く)
-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 것인지 난감한 지경인데 (동아:手をつける)
- 좌판에 얼굴을 내민 음반은 (동아:顔を出す)
- 제품들이 날개 돌친 듯 팔리고 있다(조선:羽根が生えてように売れる)
- 상대방의 콧대를 꺾겠다고 다짐한다.(동아:鼻っ柱を折る)
- 어쩐지 요즈음 거기에 얼굴을 내밀지 않는 (조선:顔を出す)
- 마지막으로 TV를 떠났'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보이게 됐다. (조선:顔を見せる)
- 정치인들의 낮 두꺼운 행태를 보면 세금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마저 든다(중앙:顔の皮が厚い)

- 152로 꿩자 崔3단은 잠시 얼굴을 붉히더니 등을 던졌다.(중양:顔を赤める)
- 아버지는 가슴 찢어지는 슬픔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했다(중양:胸が裂ける)
- 기범이 닭살 돋는 마마보이 흉내를 내자, 신영은‘보기 드문 효자’라며 흡족해 했다.(중양:鳥肌が立つ)

이상과 같이 신문에서 일본어형 관용어를 무절제하게 차용하는 범례를 살펴 보았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순수 한국어 관용어 대신 일본어형 관용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다. 더구나 매스컴에서 일본어계의 관용어가 한국어에 그대로 유입되어 독자들에게 그대로 익혀진다면 언젠가는 한국어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순수한 한국어들을 잠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번 신문의 사례에서는 올리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어사전에 등록된 “얼굴이 넓다”는 「아는 사람이 많다」, 「교제범위가 넓다」라는 의미의 일본어 관용어인데, 같은 의미의 한국어 「발이 넓다, 마당발이다, 오지랖이 넓다」를 침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1)</sup>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계몽 활동과 동시에 한국어학 분야에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망되고, 특히 언론매체나 학교 및 관공서에서도 한국어의 관용어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관용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이를 적극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 결론

이상으로 국어사전과 언론매체를 통해 일본어의 우리말에 유입된 과정과 일본어계 관용어의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어의 관용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관용어를 무분별하게 많이 차용하고 유입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식민지 시대의 문학 작품을 일본어의 문장 언어에 익숙한 작가들이 다시 한국어로 바꾸어 기술하는 과정에서 일본어의 간섭을 받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송민은 이에 대해서 “현대 국어에 나타나는 통사층위 차용은 역시 대부분의 영어와 일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근대 한

11) 「얼굴이 넓다」의 관용어는 이미 1968년부터 국어사전(표준 국어사전(성문사))에 수록되기 시작했음.

국어와 다른 현대 한국어의 독특한 문장구조나 관용적 표현은 일본어가 적극적으로 간섭한 결과로 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현대 한국어의 관용어 중에도 앞에서 예시된 것처럼 형태소 하나하나의 기능과 의미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와 유사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것을 자칫 한국어인 것처럼 착각하여 작가들이나 학자들이 무분별하게 일본어계 관용어를 남용한다면 한국어의 순수한 관용어를 저해하여 결국에는 한국어 관용어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어체나, 구어체에 나타나는 일본어계 관용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 체계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도한 본 연구에서 통시적·공시적 고찰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일본 강점기에는 한국어 사전에 유입된 일본어계 관용어 숫자가 의외로 적은 데 비해 1980년도 이후에 급격히 일본어계 관용어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해방 이후에도 의·식·주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일본어 표현이 난무하면서 우리말의 위상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일본어의 뿌리는 우리 언어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사회 및 교육기관을 통해 우리말 가꾸기, 우리말 되찾기, 국어순화운동 등을 통해 일본어의 잔재를 청산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어 표현이 여전히 우리말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2005년 1월 27일 <국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범국민적 운동차원으로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틀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말에 대한 이러한 범국가적 운동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인 계몽 특히 언론매체의 지속적인 우리말에 대한 홍보와 외래어사용 절제 등을 통해서 우리말 사랑과 애용 더 나아가 한국어의 세계화로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권익호 · 이선화(2019) 「신문에 나타난 일본어 표현에 관한 고찰-일본어 투 조사(助詞)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제80집, pp.7-35. (DOI: <http://dx.doi.org/10.15565/jll.2019.12.80.7>)  
 김광해(1995) 「조망: 국어에 대한 일본어의 간섭」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원

12) 전계서, 송민(1988) p.55.

구원, pp.3-26.

송민(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現代韓國語와 日本語의 경우-」 『論文集(Song Sim Research Journal)』 제10권, 성심여자대학교, pp.29-62.

안찬원(2017)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어 투 사용실태와 순화 방안」 『한글』 315호, 한글학회, pp.99-128. (DOI: <http://dx.doi.org/10.22557/HG.2017.03.315.99>)

이경규·오경순(2011)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호, 한국어학회, pp.93-117.

이하자(2005) 「한국 신문기사에 나타난 일본어 투 표현 고찰」 『일본어교육』 제31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99-116.

이한섭 외(2012) 『일본어 투 어휘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pp.264-265.

정광(1995) 「일본어 투 문장 표현」 『새국어생활』 제5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pp.87-107.

정수현(2002) 「현대 한국어 속의 일본어 투 표현 고찰」 『일본학』 제21권,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45-62.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要旨>

韓国語における日本語系慣用語に関する考察  
—韓国語事典を中心に—

洪敏憲 · 權益湖

本研究は19世紀末以降、韓国語に日本語系慣用語がいつ、どの程度流入し、また当該慣用語が現在でも使われているかについて、時代別に編纂された国語辞典に収録された慣用語を中心に、通時的・共時的考察により、韓国語の中の日本語の残滓の形態を調べたものである。無論、このような試みは様々な資料、例えば小説、雑誌など膨大な時代的資料を基に検証してこそ学術的価値として認められると考えられるが、本研究では限られた辞書と新聞に限定して、部分的ではあるが日本語の流入実態について分析・考察を試みた。その結果、日本の植民地時代には韓国語辞典に流入した日本語系慣用語の数が殊の外少ないのに対し、1980年度以降に急激に日本語系慣用語が流入した事実が認められた。したがって、今後、これに対する国家レベルでの対策づくりが必要と考えられる。

Considerations for Japanese expressions in Korean  
—Focusing on the Korean dictionary—

Hong, Min-Hee · Kwon, Ik-Ho

This study looks at the remnants of Japanese language in Korean through synchronic and diachronic review focusing on idioms found in the Korean dictionary. These were compiled according to the times, looking at when and to what extent Japanese idioms have been used in Korean since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se attempts are thought to be recognized as academically valuable only when verified based on a vast amount of historical data such as novels and magazines. But, in this study, we analyze and examine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language, albeit partially, into limited dictionaries and newspapers. Our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Japanese idioms introduced into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surprisingly small, however Japanese idioms were integrated rapidly after 1980.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national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the future.